

# 조립업체와 부품업체간 협력방안

한국로스트왁스공업 대표이사 **장 세 풍**

## 1. 서 론

항공기 사업은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사업임에도 우리는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보다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운명에 처해있다. 항공기 설계기술이 중요함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다. 그



러나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품 소재 분야이다.

아무리 훌륭한 국산 설계가 완성되었다 해도 부품과 소재가 개발되지 않으면 한국산 비행기라고 하기 힘들 것이다. 어떤 분들은 설계 기술이 있다면 부품이나 소재는 선진국에서 수입해서 조립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비행에의 안전성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데 이제 개발해서 불안한 상태의 국내업체로부터 조달 받아 조립해야 하느냐?” 하며 신뢰성있는 기존의 외국업체로 부터 수입하여 비행기를 만들면 된다는 사고가 굳어져 있다.

부품소재를 외국회사로 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다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부품을 가지고 조립할 경우 외국에서 제작한 비행기와 가격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 2. 현실과 문제점

현재 국내에서 제작되는 기계의 중요한 부품은 거의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신장에도 불구하고

고 무역적자는 점점 더커져 국제수지는 악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금년에 통상산업부에서 자본재산업 육성계획을 세웠고 대통령께서도 적극 지원한다는 약속을 하셨다. 처음은 어렵겠지만 항공기산업국이 되기 위해서는 설계 못지않게 부품소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행기도 수출하고 부품소재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진정한 항공기 생산 국가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기업과 부품소재생산 협력업체의 전문화, 계열화가 필요하다. 모기업은 중소기업체인 협력업체를 신중히 선정, 참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하며 협력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모기업에서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신뢰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느 면에서는 모기업보다 협력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책임이 막중함을 절실히 인식하고 사명감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앞날이 유망한 분야이니 참여하면 언젠가 빛 볼 날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장미빛 희망으로 항공산업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이제 겨우 첫 걸음을 내딛는 한국로스트왁스공업 주식회사로서 느낀 것이 있다면 어렵다는 것, 아니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

행할 것이다.

### 3. 이렇게 해야한다

어려운 항공기산업에 뛰어들 기업은 이렇게 해야 한다.

- 첫째, 중소기업으로서 항공 산업을 추진하는 업체는
  - ① 항공기 산업은 쉬운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참여해야 한다.
  - ② 단기간에 수익성을 맞출 수 있는 산업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③ 모기업이 믿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④ 새로운 첨단설비(생산 설비, 시험 측정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대기업(모기업)은

- ① 대기업(모기업)은 자체기업의 발전만을 위한 중소기업협력업체를 지원 육성하려는 경영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국내 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협력업체를 발굴 육성해나가는 진정한 협력관계이어야 한다.
- ② 더러는 외국에서 수입 조달되는 부품 소재와 값이 같더라도 국산화의 의지를 갖고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
- ③ 부품 소재 국산화가 안되면 한국비행기가 아니라는 신념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항공산업 육성과 2000년대 항공산업의 세계 10위권을 목표로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 ① 항공산업이 다른 산업과 다른 특징을 인식하고 항공기산업에 알맞는 지원정책을 펴야한다.
- ② 설계와 동시에 부품소재도 개발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③ 외국에 뒤떨어진 항공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외국보다 더욱 과감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특히, 부품소재업체는 기술이 취약하고 자금력이 빈약한 영

세 중소기업이 많다.)

- ④ OFFSET 방식의 적극 활용한 국내 항공관련산업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항공산업 분야는 선진국에서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분야임으로 이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
- ⑤ 항공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연구소나 학교의 시험 연구장비는 일반산업분야의 설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산업발전을 위한 신지원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항공산업을 위한 연구시험장비는 고가설비이므로 중복설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및 연구소는

- ① 학문적인 연구와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하다.
- ② 시험장비의 현대화와 연구인력의 육성으로 외국업체가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조기인증획득이 필요하다.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모기업, 협력업체, 정부, 대학, 연구소 등이 한국형항공기 개발을 위해 각기 분담된 분야에서 최선의 협력과 노력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대만,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한국보다 조금 앞서가는 국가나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항공선진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항공산업국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